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임 기 영 · 조 선 미

= Abstract =

Student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Medical Career Decisions

Ki-Young Lim, MD., Sun-Mi Cho,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medical career decisions choosing a medical specialty.

Methods: Medical career decisions were influenced by a number of factors which may b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1) personal, (2) demographic, and (3) environmental. In pre-medical stage, choice of a medical school was mainly decided by interests and aptitude (34.2%). Social class and economic condition that can be obtained after the graduation was second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27.6%). In choosing medical specialty, aptitude was predominant determinant (84.5%) and the influence of other factors were weak. Personal value system and perception of self-capacity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was used to measure four dimensions of personality.

Results: As a result authors, could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ty preferences of medical students and interns and their psychological type. The best match was possible for those who favored psychiatry and surgery. Prospective psychiatrists' perception were tempered by intuition which means highly theoretical and reflective orientation. They were also introverted and sensitive. Prospective surgeons were more assertive than students with other specialty choice.

Key Words: Medical specialty choice, MBTI, Personality type, 16PF

책임저자: 임기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번지
Tel: 031)219-5180, Fax: 031)219-5179
E-mail: kylim@ajou.ac.kr

서 론

의과대학생에게 있어서 전공 선택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과대학생이 처음 의학을 선택하는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졸업 후 전공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태도와 가치가 뒤얽힌 과정인 경우가 많다. 이 과정은 의과대학 입학 시기에 이미 시작되어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까지 계속되는 길고도 힘든 선택의 과정이다.

Rezler와 Flaherty(1985)는 전공분야의 결정과정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 '인구통계학적 요인(demographic factor)',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으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과대학생이 의과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을 연구한 Bloom(1971)은 의과대학생은 비교적 일찍부터 의대 진학을 고려하지만 확실한 결정은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 가족이나 친지 중 의료인이 있을 경우 의대 진학을 더욱 빨리 고려한다고 하였다. 의과대학의 선택이 비교적 빠르게 고려대상이 되고, 결정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에 비해 전공분야의 선택은 상당히 복잡하고 상호 관련된 긴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 전공 선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을 들 수 있다. Gough(1975)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심장병학을 비롯한 외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산부인과와 내분비학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또한 남학생들은 노인병학, 물리치료, 알러지학, 소아정신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았고,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그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rdman 등(1960)은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전공 선택의 최고 예측인자는 의대생들의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적 욕구, 가치, 흥미에 대한 자기평가라고 하였다. 즉 개인적 성격특성과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전공과를 인간지향적인가, 혹은 기술지향적인가의 측면에서 분류했을 때 예측의 정

확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도(Crites, 1963; Bruhn과 Parsons, 1965) 전공을 포함한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 성격과 가치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Mowbray와 Davies(1971)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성격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면서 Eysenck의 성격질문지를 이용하여 전공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결과는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지만 외과의와 정신과의는 복잡성과 사고-내향형의 축에서 분명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신경증경향과 외향성에 따라 학업성취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론적-예술적 흥미, 실제적-경제적 흥미, 지배성과 같은 특징이 전공 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특히 정신과의 경우 외과에 비해 이론적-예술적 흥미가 높고, 사회 복지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적-경제적 흥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ufit 등(1969)은 의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성격특성과 단일한 전공 간에 의미 있는 상관을 얻지는 못했지만 성격상 개인지향적인가, 기술지향적인가 하는 특성은 전공 선택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Myers-Briggs와 Davis(1964)는 의대생의 심리적 유형과 후에 선택하는 전공과의 관련을 살펴본 결과 성격유형과 선택한 전공과의 관련이 매우 높았다. 이 연구는 성격질문지인 MBTI가 사용되었는데 이 검사에서는 한 사람의 성격이 4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평가된다. 이런 식의 분류가 전공과의 선택과 연관을 보여 많은 연구에서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다. 직관 및 감정형, 내향 및 외향형 간에는 전공 선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테면 신경정신과에는 직관형이 82%, 신경학에서는 76%, 의학교수는 60%, 병리학은 68%로 차이를 보였다(Camiscioni, 1974). 또한 마취과 전문의 중에는 내향형, 감정형이 많았고, 환자와의 접촉이 많은 과를 선호한 학생들 중에는 외향형이 많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인 것은 외과와 정신과를 선호한 사람들이었다. 외과 의사들은 다른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더 자기 주장적, 외향적,

모험적, 행동 지향적이었고, 정신과 의사들은 내향적, 내성적이며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된 요인들의 수가 많고, 개인마다 영향을 받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하게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의과대학생의 적응을 돕고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반 의사결정과정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된 논문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 가치관이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만이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남정현과 조연규, 1995; 유희정 등,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성격특정과 가치관들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0년도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 34명, 6학년 학생 24명, 인턴 18명 등 전체 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남자는 56명, 여자는 20명이었고, 연령평균은 26.7(SD=2.23)세였다.

2. 측정도구

1) MBTI

Jung의 성격유형론에 근거하여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성격유형검사를 김정택과 심혜숙(1990)이 표준화한 한국판 MBTI 성격유형검사를 사용하였다. 검사결과는 Jung의 이론에 기초한 네 가지 차원에서 개인의 선호경향을 나타내주며, 성격은 이 선호형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2) 16PF

16PF는 Cattell의 특성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성격특성 중 근원이 되는 일차적인 특성이라고 지각되는 요인들을 측정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성격특성으로는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예민성, 공상성, 실리성, 자책성, 진보성, 자기결정, 자기통제, 불안이 있다. 국내에서는 염태호와 김정규(1999)가 번역, 표준화하였다.

3) 자기능력 지각척도

Harter가 개발한 검사를 이명숙(1994)이 번역한 것으로 자기존중감, 학업능력, 사회적 능력, 운동능력, 품행, 신체적 매력 등의 영역에 있어서 청소년이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4) 진로태도 측정도구

한국 고등학생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확신성, 독립성의 5가지 진로태도 구인을 설정하여 만들어진 질문지이다 (이기학, 1997; 이기학과 한종철, 1997).

5) 가치척도

Rokeach의 가치체계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일반적 가치의 요인을 구성하기 위한 문항으로 사용하였으나 목적가치와 수단가치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였다. 성공지향가치, 생활지향, 전통지향, 관계지향, 쾌락지향, 권리지향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Likert식 7점 척도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남승규, 1995).

그 밖에 의과대학의 진학요인 및 영향을 미친 요인, 각 전공과에 대한 인기도, 환자접촉 등에 대한 주관적 평정 등에 대한 질문내용을 구성해 이를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학생들의 경우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인턴들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설문지 완수여부가 수업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4. 자료 분석

전체 82부의 질문지 중에 무응답이 많거나 성의

Table 1.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ly in Deciding to Apply Medical School (number, %)

	interns	5th graders	6th graders	total
job stability and social status	4(22.6)	9(26.4)	8(33.4)	21(27.6)
interest and aptitude	7(38.9)	10(29.4)	9(27.5)	26(34.2)
school record	3(16.7)	5(14.7)	5(20.8)	13(17.1)
social service	2(11.1)	5(14.7)	1(4.2)	8(10.5)
others	2(11.1)	5(14.7)	1(4.2)	8(10.5)
total	18(100)	34(100)	24(100)	76(100)

Table 2. Person who Played major role in Deciding to Apply Medical School (number, %)

	interns	5th graders	6th graders	total
student him or herself	10(55.6)	19(55.9)	15(62.5)	44(57.9)
parents	7(38.9)	12(35.4)	8(33.4)	27(35.6)
others	1(5.6)	3(8.8)	1(4.2)	5(6.8)
total	18(100)	34(100)	24(100)	76(100)

Table 3.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ly in Deciding Medical Specialty (number, %)

	interns	5th graders	6th graders	total
employment or income	2(11.1)	4(11.8)	1(4.2)	7(9.2)
interest and aptitude	15(83.4)	29(85.3)	20(83.4)	64(84.3)
others	1(5.6)	1(2.9)	3(12.5)	5(6.5)
total	18(100)	34(100)	24(100)	76(100)

없이 표시한 자료 6개를 제외한 76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자료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x²분석, 변량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의과대학 선택과 관련된 요인

1) 의과대학 선택 시 고려한 요인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에게 의과대학에 진학할 당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했을 때 흥미와 적성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4.2%), 그 다음은 직업의 안정성 및 사회적

지위(27.6%)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x^2=7.30, p=.83$).

2) 본인의사 반영정도와 만족도

의과대학에 진학할 때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했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경우도 35.6%나 되었다. 이런 비율 역시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x^2=7.30, p=.83$).

Table 4. Percep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inical Medical Specialty (mean, SD)

	interest and aptitude	prospect and stability	knowledge level	contact with patients
internal medicine	3.21 (1.38)	4.20 (1.20)	2.86 (0.92)	1.93 (0.89)
general surgery	4.19 (1.76)	3.57 (1.32)	3.24 (1.08)	3.04 (1.34)
Ob. & Gy.	3.53 (1.39)	2.79 (0.92)	3.08 (1.08)	2.26 (1.19)
urology	4.07 (1.49)	3.21 (1.20)	3.38 (0.88)	2.96 (1.20)
pediatrics	3.92 (1.57)	4.67 (1.20)	3.38 (0.88)	2.12 (1.01)
ENT	4.16 (1.52)	2.95 (0.98)	3.32 (1.04)	3.04 (1.21)
psychiatry	3.51 (1.74)	3.69 (1.34)	2.79 (0.95)	1.80 (0.91)
neurology	4.13 (1.44)	3.77 (1.16)	3.18 (0.83)	2.84 (1.07)
dermatology	4.55 (1.62)	3.36 (1.26)	3.28 (1.09)	3.30 (1.31)
rehab. medicine	3.72 (1.41)	3.39 (1.15)	3.20 (1.04)	2.27 (1.07)
family medicine	3.99 (1.59)	4.00 (1.34)	3.83 (1.25)	2.53 (1.34)
ophthalmology	4.08 (1.63)	2.63 (1.17)	3.46 (0.91)	3.30 (1.41)
anesthesiology	4.92 (1.24)	4.09 (1.22)	3.86 (0.95)	5.11 (1.43)
radiology	4.85 (1.41)	4.51 (1.13)	3.62 (0.98)	5.53 (1.34)

의과대학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1(전혀 만족스럽지 않다)에서 7(매우 만족스럽다)까지 7점 척도에서 답하게 했을 때 전체 평균은 ‘약간 만족한다’에 가까운 3.16이었다. 만족도와 의대 선택 시 본인의 의사 반영된 정도는 정적상관을 보여 ($r = .443, p < .001$) 본인 스스로의 뜻에 따라 진학을 결정했을 때 이에 대한 만족도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2. 전공 선택 시 고려요인

차후로 전공을 선택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응답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의과대학의 선택 시 비교적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던 것에 비해 전공의 선택에 있어서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84.3%) 학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chi^2 = 9.96, p = .44$).

3. 전공과별 특성에 대한 지각 및 지망과

각 전공과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이 전공 선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전공과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어느 정도나 맞는

다고 생각하는가, 미래의 전망이나 경제적 안정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는가, 교과내용이나 커리큘럼 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환자와의 접촉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Likert 7점 척도에서 답하게 하였다. 1은 ‘매우 높다’에 해당하고, 7은 ‘매우 낮다’고 평정한 것이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내과, 정신과, 산부인과 의 순으로 높았고, 미래의 전망 및 안정성에 대해서는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의 순으로 높게 나왔다. 각 과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커리큘럼이나 교과 내용의 수준에 대해서는 정신과, 내과의 순으로 높다고 지각을 하였고, 각 과의 특성상 환자와의 접촉이 많다고 생각한 과는 정신과, 내과, 소아과의 순이었다. 설문문에 포함된 14개의 임상과는 선행연구를 개관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것들을 선택하였다.

학생별 전공분야의 지망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앞의 설문문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의학과와 의료정책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7명 있어 지원과는 모두 16개가 되었다.

Table 5. Numbers of Applicants in each Clinical Medical Specialty (number, %)

	internal medicine	general surgery	Ob. & Gy.	urology	pediatrics	ENT	psychiatry	neurology
number (%)	20(20.8)	8(8.3)	7(7.3)	3(3.10)	1(1.0)	4(4.2)	9(9.4)	4(4.2)
	dermatology	rehab. medicine	family medicine	ophthalmology	anesthesiology	radiology	emergency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number (%)	1(1.0)	5(5.2)	2(2.1)	2(2.1)	1(1.0)	0(0.0)	6(6.3)	1(1.0)

4. 각 과의 분류

전공과의 수가 많은 편이고, 과별로 지망생의 편차가 심하며, 특성상 유사한 과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16개과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학생들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 정도를 체크한 측정치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하였고, 선행연구 중 (Otis와 Weiss, 1973) 전공과를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한 결과를 함께 참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지망생이 많고 과의 특성이 뚜렷한 내과, 정신과는 독립적으로 한 범주로 하였고, 외과 계(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응급의학과) 관련학과를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였다. 기타 과들은 서로 공통성은 모호하나 앞서 분류한 과들의 특징과 공통점이 적어서 다른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 이처럼 분류한 범주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성격 및 가치관을 측정된 결과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1) 가치척도 및 자기능력 지각과 전공과의 관련

연구에 사용된 가치척도는 성공지향, 생활지향, 전통지향, 관계지향, 쾌락지향, 권리지향의 6가지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전공과별로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능력 지각척도는 학업능력, 사회적 기술에 대한 능력, 운동능력, 자아존중감, 행동 및 외모에 대한 자신감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집단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자와의 접촉정도를 선호하는 정도와 사회적 기술에 대한 자기능력지각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학생들에 의해 환자와의 접촉이 많은 것으로 분류된 내과와 정신과를 한 집단으로, 나머지를 다른 한 집단으로 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자와의 접촉이 적은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회적 기술능력과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한 지각이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그 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2) 진로태도

진로태도 측정도구는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 전공과별로 하위척도 상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태도는 전공과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태도와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 의과선택에 대한 만족도 등의 요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척도 중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능력, 사회적 기술, 운동능력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고, 진로태도의 소척도중 결정성, 확신성 등과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다. 반면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은 다른 영역과의 상관이 높지 않고, 진로태도 중 목적성과만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인 점으로 볼 때 자기능력지각이나 진로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이나 진로에 대한 확신감 같은 주관적 요인들이 진로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

Table 6. Relative ratio of MBTI Preference (number, %)

		internal medicine series	psychiatry	surgery series	others	χ^2
extraversion-intr oversion	extraversion- introversion	10 (50.0)	2 (22.2)	7 (29.2)	5 (26.3)	3.61
		10 (50.0)	7 (77.8)	17 (70.8)	14 (73.4)	
sensing- intuition	sensing intuition	14 (70.0)	1 (11.1)	16 (66.7)	14 (73.4)	11.81**
		6 (30.0)	8 (88.9)	8 (33.3)	5 (26.3)	
thinking- feeling	thinking feeling	16 (80.0)	4 (44.4)	14 (58.3)	15 (78.9)	5.70
		4 (20.0)	5 (55.6)	10 (41.7)	4 (21.4)	
judging- perceiving	judging perceiving	15 (75.0)	4 (44.4)	10 (41.7)	13 (68.4)	8.53*
		5 (25.0)	5 (55.6)	14 (58.4)	6 (31.6)	

* p< .05, ** p< .01

Table 7. Scores of MBTI Preference

	internal medicine series	psychiatry	surgery series	others	F
extraversion-introversion	110.70 (26.42)	113.22 (22.98)	116.75 (25.41)	117.94 (24.58)	.33
sensing-intuition	84.95 (25.17)	113.22 (16.92)	87.83 (24.58)	83.57 (20.50)	3.92*
thinking-feeling	84.60 (20.86)	91.66 (18.89)	89.50 (23.60)	84.10 (20.97)	.44
judging-perceiving	83.10 (25.07)	97.88 (29.41)	99.75 (26.22)	86.42 (20.97)	1.81

* p< .05, ** p< .01

로 추정된다.

3) MBTI의 성격유형과 전공

MBTI는 Jung의 이론에 근거하여 성격유형을 일 반적인 태도상에서 내향성-외향성으로 분류하였고, 정신의 각 특수기능을 중심으로 흥미, 선호의 방향 에 따라 감각-직관, 사고-감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태도의 차원에서 인식-판단형으로 분류하여 각 차원에서 서로 다른 16개의 조합으로 성격을 유형화하였다.

각 지망과별로 MBTI 성격차원상의 비율을 알아 보면 Table 6과 같다.

내-외향성에서는 내과지망자만이 내향성과 외향 성의 비율이 각 50% 정도였고, 나머지는 모두 내향 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 었다. 감각-직관의 차원에서는 정신과 지망자들만이 압도적으로 직관형이 많았고, 나머지 과에서는 감각 형이 많았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 사고-감정의 차원에서는 정신과, 외과는 사고형과 감정형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 고 내과와 기타 과들은 사고형이 많았지만 이 역시 의미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판단-인식의 차 원에서도 정신과와 외과는 두 유형의 비율이 비슷 하였지만 내과와 기타 과는 판단형이 훨씬 많았고,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

각 유형의 점수를 환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MBTI점수는 원점수를 환산 한 유형별 환산점수가 있으며, 환산점수를 다시 100-(E, S, T, J), 100+(I, N, F, P)로 전환시킨 연속

점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연속점수를 사용하였다. 100이 넘는 점수는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을 의미하며, 반대로 100이하의 점수는 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을 의미한다.

Table 7의 결과를 보면 비율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내외향성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감각-직관의 차원에서는 정신과가 다른 과와는 두드러지게 직관의 특성이 강했다. 사고-감정의 차원에서도 정신과가 가장 감정형의 특성이 강했으며, 판단-인식의 차원에서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MBTI 성격유형에서는 정신과가 다른 과와는 차별되는 성격특성을 보였다.

4) 16PF의 성격특성과 전공

16PF는 성격의 특성 중 근원이 되는 16가지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계열별로 16PF에 포함된 성격특성상 차이가 있는지 F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지배성과 예민성만이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지배성의 경우 사후검증결과 외과계가 내과, 정신과와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예민성의 경우 정신과가 외과 계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제외한 다른 특성들은 전공과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초기 의과대학정책을 결정하는 교육자들은 의과대학에서 수행이나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성취이며, 개인적 흥미나 태도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점차 의사로서의 태도와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Dimond, 1974), 의사의 개인적인 가치나 흥미, 태도, 특히 사람에 대한 태도는 전공을 선택하고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Wagoner와 Gray, 1979).

의과 대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과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흥미나 가치, 태도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학생들이 의

과대학 입학당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흥미와 적성이었지만(34.2%), 직업의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도 27.6%나 되었다. 그렇지만 대학 4, 5학년과 인턴들에게 전공 선택시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하는 질문하였을 때 흥미와 적성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84.5%이었고, 취업전망과 직업의 안정성은 9.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진학 전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전망 등 외적인 여건들을 중시하지만 실제로 의학적 지식을 쌓고 임상 경험을 한 후에는 개인적 적성이나 흥미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의과대학 진학이나 전공 선택 시 개인적 요인을 가장 중시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Erdman 등, 1960).

개인적 변인 가운데서도 특히 성격과 개인적 가치관, 인간 지향적인가, 기술 지향적인가 하는 요인들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요인이 특정 과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기한 특징이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각 과를 구별하기보다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임상 과인지, 혹은 연구 및 기초의학 과인지,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모호하게 대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Schumacher, 1968). 몇몇 연구에서는 정확한 근거에 따라 분류하고자 응답내용에 대해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였지만 선호도에 따른 응답이기 때문에 각 과의 특성이 직접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별 특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분명히 밝혀보고자 적성 및 흥미, 경제적 안정성, 교과내용수준, 환자와의 접촉정도에 따라 각 임상과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흥미와 적성의 측면에서는 내과, 정신과의 순으로, 경제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안과, 산부인과, 환자와의 접촉은 정신과, 내과, 소아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요인분석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으나 상기한 자료를 근거로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정신과, 기타과로 분류하여 개인적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치관과 성격, 적성, 흥미, 성별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런 연구들이 거의 수행되지 않아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전공 선택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선행연구(Crites, 1963)에 의하면 의과대학생들은 직업상의 자유와 독립성, 안정성, 타인에 대한 동정 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것이 전공 선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이런 상관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지향, 생활지향, 전통지향, 관계지향, 쾌락지향, 권리지향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가치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어떤 범주의 가치도 전공 선택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차후로는 다른 종류의 가치척도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도 전공 선택과 뚜렷하게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응답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가장 우선 고려한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능력에 대한 지각은 이차적이거나 혹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 중 성격의 차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어난 차원이다. 특히 융의 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성격유형과 전공 선택과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MBTI를 사용하여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성격유형과 선호하는 전공과의 관련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내향성-외향성 차원이 각 임상과의 환자와의 접촉빈도와 상관관계를 주로 밝힌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감각-직관의 차원과 판단-인식의 차원이 전공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모든 정보를 자신의 오관에 의존하여 받아들인다. 무엇이 현재 이 상황에 주어졌는가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적이고, 세부적이며, 현실적이다. 반면 직관기능을 선호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의 가능성이나 심오한 의미와 전체적인 관계를 육감에 의존하여 얻어낸다. 전체를 파악하고 본질적인 패턴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미래의 성취와 변화를 즐긴다. 판단-인식의 차원에서 판단형은 생활을 조절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면서 계획을 선호한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미리 준비하는 편이며, 기간 내에 일을 마무리한다. 반면 인식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삶을 통제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순간에 적응을 하고 개방적이다.

자료 분석 결과 정신과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타 과를 지망하는 응답자에 비해 직관형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또한 정신과와 외과 계를 지망하는 응답자는 판단형에 비해 인식형이 많은 반면 내과 계와 기타 과 지망자들은 판단형이 더욱 많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볼 때 정신과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특성은 다른 과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응답자들은 그런 특성이 과연 자신에게 잘 맞는가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정신과는 특성상 다른 과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Myers-Briggs와 Davis, 1964), 이 연구에서도 역시 정신과 의사 중 직관형이 82%로 다른 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고형에 비해 감정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도 다른 과와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정신과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식보다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런 측면이 전공 선택에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 같다. 이는 아마도 정신과적 장애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사람의 오감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성격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체계적으로 일하는가, 혹은 순간에 적응하는 편인가 하는 측면, 즉 판단형과 인식형의 비율이 정신과와 외과계열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내과 및 기타 과에서는 판단형이 우세하게 많았다. 아마도 내과 및 기

타 과에서는 세부적인 정보를 잘 모으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 같고, 이런 과의 특징이 개인적인 성향과 잘 맞는가를 전공 선택에서 중시하는 것 같다.

내향성-외향성의 측면이 업무수행 시 환자와의 접촉빈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지지되지 않았다. 앞서 평정한 결과에 의하면 환자와의 접촉 빈도는 정신과, 내과의 순으로 많다고 했는데 정신과의 경우 내향성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내과는 내향성과 외향성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향성을 지닌 사람이 환자와의 접촉이 적은 과를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또 다른 성격검사인 16PF에서는 지배성과 예민성의 차원에서만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지배성 차원은 외과계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예민성 차원에서는 정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Myers 등의 연구에서 마취과 전문의가 내향성, 자기충족성, 지배성, 긴장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역시 성격적 특성이 전공 선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Myers는 마취과 전문의들이 빠리, 효율적으로 과제를 완성하는데서 만족을 느끼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종류의 지각과 판단을 사용하고 싶어한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각 과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이 개인의 선호와 잘 맞을 경우 이들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Crites, 1963)에서 타인에 대한 온정성 등이 차이를 보인 점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온정성 차원에서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볼 때 의과대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나 자기지각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것 같고, 선호하는 과가 요구하는 개인적 특성을 더욱 고려하는 것 같다. 특히 MBTI에서 측정되는 성격의 차원은 전공 선택 시 고려하는 성격이나 적성의 차원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으므로 진학지도 시 MBTI의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한점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이 이

외의 전공 선택을 설명해 줄만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의과대학생의 학업성취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유희정 등, 1998) 전공 선택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태라 일차적으로 외국의 연구결과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일차적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추후로는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변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임상과가 실제로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생들이 생각하는 각 임상과에 적합한 적성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의 경우 학생들이 아닌 잘 기능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특성으로 과를 분류하고자 했으나 자료의 수가 부족해 적합한 통계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실제로는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변인도 있다. 이를테면 성별과 같은 요인은 여러 연구에 의해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외과의 경우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비뇨기과, 신경과를 지원하는 여학생은 없었으며, 반대로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지원하는 남학생은 한 명도 없는 등 성차에 의한 차이가 시사되었다. 그렇지만 자료의 수가 적고, 남녀의 비율 차이가 커서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는 의미 있는 분석이 어려워 결과에 제시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자료가 제한되어 있고, 연구를 수행한 학교가 한 학교로 제한되어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 의과대학생들에게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다양한 학교를 연구에 포함시켜 더욱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진학할 때와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요인들을 중시하는

지, 그리고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과대학 진학 시 학생들은 흥미와 적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고(34.2%), 그 다음으로 직업의 안정성 및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6%). 전공을 선택할 때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84.5%이고 나머지 고려요인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공 선택에는 적성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융의 이론에 근거한 성격유형이 선호하는 전공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각-직관의 차원에서 정신과 지원자들의 경우 직관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판단-인식의 차원에서는 정신과와 외과가 두 유형의 비율이 비슷하였지만 나머지 과에서는 판단형의 비율이 의미 있는 정도로 많았다. 16PF를 사용한 성격차원에서는 외과계열을 지망한 지망자가 타 계열 지망자에 비해 지배성에서 의미 있는 정도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예민성 척도에서는 정신과 지망자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김정택, 심혜숙: *MBTI 성격유형검사*. 한국 심리검사 연구소, 서울, 1991.

남정현, 조연규: 의과대학생의 학업수행과 다면적 인성검사결과의 상관관계. *정신건강연구* 14:191-197, 1995.

남승규: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가치의 영향.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1995, 쪽 1-30.

염태호, 김정규: *다요인 인성검사*. 한국 가이던스, 서울, 1999.

유희정, 황성훈, 한오수, 홍창기: 의과대학에서의 성공적 적응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관한 개관. *한국의학교육* 10(2):323-335, 1998.

이기학: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7, 쪽 5-45.

이기학, 한종철: 진로태도 측정에 관한 연구 I: 진로태도 구인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1997, 쪽 233-240.

이명숙: 기질 및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4, 쪽 3-28.

Bloom SW: *The medical school as a social system*. *Milbank Mem. Fund. Quart* 49:68-70, 1971.

Bruhn JG, Parsons OA: *Attitudes toward Medical Specialties; Two follow-up studies*.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40:273-280, 1965.

Camiscioni JS: *Trend in career choice of medical students*. *Proceeding of the Thirteenth Annual Conference on Research in Medical Education,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 1974, pp 122-128.

Crite JO: *Vocational interest in relation to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4:277-285, 1963.

Dimond EG: *The physician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28:1117-1119, 1974.

Erdman JB, Johns RF, Tonesk, X: (1960).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 Longitudinal study of medical School graduates of 1960*. AAMC. Washington, D. C. 1960.

Gough HG: *Specialty Preference of Physicians and medical students*.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50:581-588, 1975.

Mowbray RM, Davies B: *Personality factors in choice of medical specialty*. *British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5:110-117, 1971.

Myers-Briggs I, Davis JA: *Relation of medical students' psychological type to their specialties twelve years later*. *Princeton. N. 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1964.

Otis GD, Weiss JR: *Patterns of Medical Career Preference*.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48:1116-1123, 1973.

Rezler AG, Flaherty JA: *The interpersonal dimension in medical education*. Springer. NY, 1985, pp 34-68.

Robert BC, Kurt WB, Thomas GD, Norma M: *Patterns of Influence; Medical school faculty members and the values and specialty interests of medical students*.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35:518-527, 1959.

Schumacher CF: *Interest and personality factors as*

related to choice of medical career.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38:932-942, 1963.

Wagoner NE, Gray GT: *Report on a survey of program directors regarding selection factor in graduate medical educatio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54:445-451, 1979.

Yufit RI, Pollock GH, Wasserman E: *Medical specialty choice and personality*. *Archives of Gen. Psychology* 20:89-99, 1969.

부 록

< 가치척도 >

아래에는 18개의 항목이 가나다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을 주의 깊게 읽고 난 후에 인간의 존재가치로서 당신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1-----2-----3-----4-----5-----6-----7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의 별로 그저 그렇다 약간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

- | | | | |
|--------------|---------------------|---------------|---------------------|
| 1. 가정의 안녕 | 1--2--3--4--5--6--7 | 2. 과업의 성취 | 1--2--3--4--5--6--7 |
| 3. 나라의 안전 | 1--2--3--4--5--6--7 | 4. 마음의 평화 | 1--2--3--4--5--6--7 |
| 5. 미래에 대한 구원 | 1--2--3--4--5--6--7 | 6. 사회적 안정 | 1--2--3--4--5--6--7 |
| 7. 성숙된 사랑 | 1--2--3--4--5--6--7 | 8. 슬기로움 | 1--2--3--4--5--6--7 |
| 9. 신나는 생활 | 1--2--3--4--5--6--7 | 10. 아름다운 세상 | 1--2--3--4--5--6--7 |
| 11. 안락한 생활 | 1--2--3--4--5--6--7 | 12. 자신에 대한 긍지 | 1--2--3--4--5--6--7 |
| 13. 자유 | 1--2--3--4--5--6--7 | 14. 즐거움 | 1--2--3--4--5--6--7 |
| 15. 참다운 우정 | 1--2--3--4--5--6--7 | 16. 평등 | 1--2--3--4--5--6--7 |
| 17. 평화로운 생활 | 1--2--3--4--5--6--7 | 18. 행복 | 1--2--3--4--5--6--7 |

다음은 여러 가지 바람직한 덕성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의 지침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아래의 번호중 하나에 √표 해주십시오.

1-----2-----3-----4-----5-----6-----7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의 별로 그저 그렇다 약간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

- | | | | |
|---------|---------------------|------------|---------------------|
| 1. 공손함 | 1--2--3--4--5--6--7 | 2. 깨끗함 | 1--2--3--4--5--6--7 |
| 3. 너그러움 | 1--2--3--4--5--6--7 | 4. 논리성 | 1--2--3--4--5--6--7 |
| 5. 독립심 | 1--2--3--4--5--6--7 | 6. 봉사심 | 1--2--3--4--5--6--7 |
| 7. 용기 | 1--2--3--4--5--6--7 | 8. 유능성 | 1--2--3--4--5--6--7 |
| 9. 유쾌함 | 1--2--3--4--5--6--7 | 10. 의욕적인 삶 | 1--2--3--4--5--6--7 |
| 11. 인자함 | 1--2--3--4--5--6--7 | 12. 자제력 | 1--2--3--4--5--6--7 |
| 13. 집착음 | 1--2--3--4--5--6--7 | 14. 정다움 | 1--2--3--4--5--6--7 |
| 15. 정직함 | 1--2--3--4--5--6--7 | 16. 지성 | 1--2--3--4--5--6--7 |
| 17. 책임감 | 1--2--3--4--5--6--7 | | |

<자기능력 지각척도>

다음 각 문항에는 서로 정반대인 A와 B라는 두 명의 학생이 나옵니다. 이 학교에는 A같은 학생이 반쯤 있고, B같은 학생도 반쯤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A와 B중 누구와 더 비슷할까요. A(왼쪽)와 B(오른쪽)중 하나를 먼저 선택한 다음 얼마나 여러분이 그 학생과 비슷한지를 생각해서 각 칸 중 알맞은 곳에 √표를 하십시오.

번호	①	②	A	B	①	②
1			A는 자기가 학교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다	B는 자기가 해야 할 학교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를 염려한다.		
2			A는 친구 사귀는 것을 어려워한다	B는 친구를 아주 쉽게 사귄다		
3			A는 모든 운동을 잘한다.	B는 운동을 할 때 자기가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A는 자기 생긴 모습에 만족한다.	B는 자기 생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		
5			A는 자기가 행동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B는 자신이 행동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6			A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지 않는다.	B는 자기 자신에 대한 꽤 만족해한다.		
7			A는 자기또래 학생들만큼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낀다.	B는 다른 학생들만큼 자기가 똑똑한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8			A는 친구가 많다.	B는 친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		
9			A는 운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B는 자기가 운동을 잘 한다고 느낀다.		
15			A는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이 어떤 것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B는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이 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A는 자기 몸이 좀 달라졌으면 하고 바란다.	B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몸을 좋아한다.		
10			A는 자기의 키와 몸무게에 만족한다.	B는 자기의 키와 몸무게가 달라졌으면 하고 느낀다.		
11			A는 대체로 옳은 일을 한다.	B는 대개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		
12			A는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B는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좋아한다.		

번호	①	②	A	B	①	②
13			A는 학교공부를 끝마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B는 학교공부를 제빨리 끝낼 수 있다.		
14			A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으면 한다.	B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많은 친구들이 있다.		
15			A는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이 어떤 것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B는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이 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A는 자기 몸이 좀 달라졌으면 하고 바란다.	B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몸을 좋아한다.		
17			A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에 맞게 행동한다.	B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다.		
18			A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	B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19			A는 배운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B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20			A는 항상 여러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한다.	B는 대체로 무슨 일을 혼자서 한다.		
21			A는 자기 또래 학생들보다 운동을 잘한다고 느낀다.	B는 자기또래 학생들만큼 자기가 운동을 잘 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22			A는 자신의 신체모습이 달라졌으면 하고 바란다.	B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신체모습에 만족한다.		
23			A는 대체로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B는 대개 자기가 곤란해질 일은 하지 않는다.		
24			A는 지금의 자기 같은 타입의 사람을 좋아한다.	B는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바란다.		
25			A는 학교공부를 아주 잘한다.	B는 학교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한다.		
26			A는 더 많은 자기또래 학생들이 자기를 좋아해 줬으면 하고 바란다.	B는 대부분의 자기또래 학생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27			A는 대개 게임이나 운동할 때 직접 하는 것 대신에 보는 편이다.	B는 게임이나 운동을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한다.		
28			A는 자기 얼굴 생김새나 머리 모양새가 좀 달라졌으면 하고 바란다.	B는 지금 이대로의 얼굴생김새나 머리 생김새를 좋아한다.		
29			A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어떤 일을 한다.	B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 그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번호	①	②	A	B	①	②
30			A는 지금 이대로의 자기 자신에게 매우 만족한다.	B는 자기가 좀 달라졌으면 하고 바란다.		
31			A는 학교에서 정확한 대답을 잘 못한다.	B는 항상 정확한 대답을 한다.		
32			A는 자기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B는 자기또래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다.		
33			A는 밖에서 하는 게임을 잘 못한다.	B는 밖에서 하는 새로운 게임을 금방 잘하게 된다.		
34			A는 자기가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B는 자기가 그다지 잘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35			A는 스스로 알아서 잘 행동한다.	B는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36			A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	B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와 정말 똑같다 : ① 나와 비슷한 편이다 : ②>

<진로태도측정도구>

다음은 진로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있는 직업이나 진로라는 단어를 '전공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를 생각해보고 다음의 해당하는 번호를 문항 원편에 있는 괄호 안에 번호로 써 주십시오.

1-----2-----3-----4-----5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2.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3.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주의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다.
4.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5.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6.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7.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8.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9. 실제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내 능력 밖이어서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
10.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1.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 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2.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뉘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13. 진로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볼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14.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15. 내가 선택한 진로의 장래성이 불투명해서 불안하다.
16.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17.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18.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19.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20.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할 자신이 있다.
21. 원한다고 해서 다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직업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22.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를 알아보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
23.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4.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25.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26. 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직장생활을 할 것인지를 이미 결정해 놓았다.
27. 진로선택이란 때가 되면 하기 마련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28.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29. 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30.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할 자신이 있다.
31.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32.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33.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34.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35.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지 걱정이다.
36. 나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37.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는다.
38.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얻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중요하지 않다.
39. 나는 내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 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40.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41.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42.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한다.
43. 다른 사람이 대신 직업을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44. 나는 무조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45. 직업을 제대로 선택할 자신이 없다.
46.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직장을 갖기 마련이어서, 나는 아직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47. 어떤 직업을 갖게 될 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48.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49. 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0. 친구들이 나의 진로 결정을 지지해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51. 나는 흥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직업을 결정할 수가 없다.
52.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길 원한다.
53.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신다.
54. 직업을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승진보다는 재미있거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55.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56.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57.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58.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기준보다 사회적인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9.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기회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60. 사람들이 왜 그런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자신이 없다.
61. 나는 새로운 취업 정보를 들을 때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자주 바뀐다.
62.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63.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주위의 친한 친구들과 비슷한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64.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현실성이 없을 때에는 포기를 해야 한다.
65. 나는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다.
66.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67.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길 원한다.
68.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69.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70.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71.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갖게 될지 별로 관심이 없다.
72.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73. 나는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어서 도전적인 일보다는 단조롭고 안전한 직업을 갖길 원한다.
74.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이 있긴 하지만 너무 어려워 포기하였다.
75.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
76.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77.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직업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78.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79.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자신의 처지에 맞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80. 아무리 주위의 친구들이 나의 진로에 대해 걱정을 하여도 자신감을 잃지 않을 것이다.
81.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82.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직업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83. 내 경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84. 어떤 직업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잘 모르겠다.
85.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자주 말하고 한다.
86.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87.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하다.
88. 나는 앞으로 내가 선택할 진로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